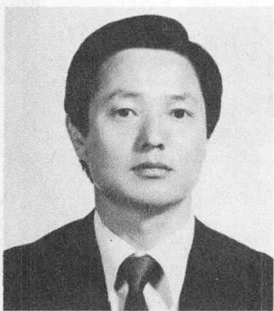


금년도 양돈인의 해로



조진형

(본회 부회장)

희망찬 병인년의 해가 밝았다. 웬지 가슴이 벅차 오르고 금년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워, 금년에도 순수하게 풀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양돈산업은 수출이 증대되고 고용이 확대되어 실업이 없어야 하고 소비경제가 잘 가동되어야만 돈육의 소비증가를 가져와서 발전이 있는데, 현실은 경제 수요가 약하고 투자지출의 저하, 실질소득의 감소로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어렵다고 비판만 하고 있어도 안되며 좋다고 낙관만 해서도 안된다. 우리 양돈인 모두가 협동 단결하여 지혜를 짜면 우리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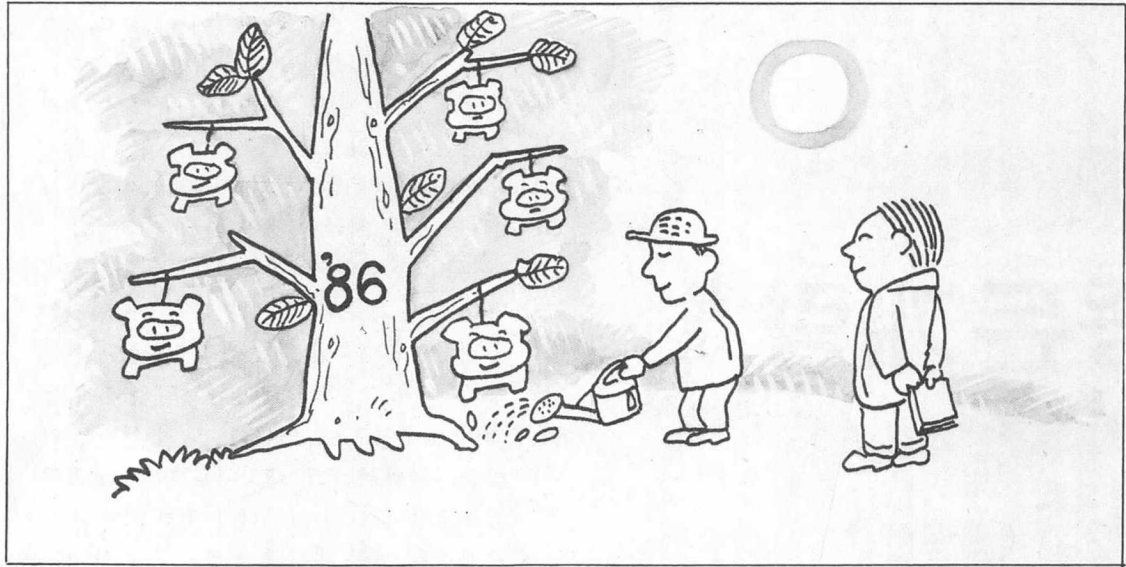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양돈산업에 호황이 오면 얼마 안가서 불황이 오고, 계속해서 불황이 오면 빛을 지고 호황이 오면 빛을 갚는 다람쥐 쳄바퀴 돌리는 식으로 지내왔다. 또한 어려워지면 정부나 비판하고 양돈인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협동 단합하여 양돈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양돈인들은 현재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방식은 그동안 곡물을 주식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육류소비의 59% 정도를 돈육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소비품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양돈인들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돈육을 공급하도록 구태의연하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새해에는 우리 양돈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먼저 종돈개량을 통해서 육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난 1년동안 대한양돈협회의 종돈능력검정 사업 실시로 일부의 종돈은 개량이 되었다고 보아야겠으나, 전 양돈농가의 종돈개량 목적의 이해증진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느껴진



다.

모든 산업이 국제화 시대가 되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의 높은 장벽으로 육류의 수입개방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혜를 짜고 기술을 연구하여 선진국 이상의 종돈으로 개량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만이 언젠가 수입개방이 된다 하여도 우리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는 육질을 향상시켜 기호성이 높고 영양이 많은 돈육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인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해야 한다.

또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돈육소비의 확대를 기해야 되겠다.

현재의 유통구조는 너무나 비위생적이며 유통경로의 복잡성과 비체계로 인해 가격형성의 민첩성과 적정성이 없으며 돈육 생산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만이 항상 피해를 보고 중간상인만 폭리를 취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금년에는 생산자의 피와 땀의 결정인 돈육이 부분육으로 포장이 되고 가공식품의 많은 개발과 소비홍보의 확대를 통해 소매점이나 슈퍼마켓을 경유해서 소비자에게 들어가 주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돈인이 앞장서야 되겠다.

지난 85년도는 84년도의 불황을 우리 양돈인들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뭉쳤고 협회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만들어 가격전망의 예보, 생산조절등을 권유·홍보하였으며, 회원은 협회를 믿고 생산조절을 하였으므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금년 병인년에는 더욱 더 협회를 정점으로 양돈인 모두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협심단결하여 생산조절을 하고 종돈개량에 힘써 양질의 돈육을 생산하여 소비확대를 통해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양돈인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